

#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라” 장흥군, 추모역사관 개관



장흥군이 26일 장동면 해동사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제’와 ‘추모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 죽산 안씨 문중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통제례로 시작한 추모제는 안중근 의사

약사보고, 유언 낭독, 추모 공연, 헌화 분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흥군은 추모제와 함께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추모역사관’ 개관식을 함께 열었다.

해동사 인근에 들어선 추모역사관은 2,995㎡부지에 연면적 249㎡의 규모로 지어졌다.

##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제 및 추모역사관 개관

### 김성 군수 “추모역사관, 지역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

역사관 내부의 전시실, 영상실에는 안중근 의사의 의병활동과 하일빈 의거, 평화와 화합을 위한 염원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다.

빛의 올림피아드 주제로 연출된 로비에는 안중근 의사를 상징하는 인터랙티브 체험형 조형물을 설치했다.

전시실은 안중근 의사의 생애 전반과 격변하는 시대의 모습을 표현한 히스토리 라인으로 연출했다.

관람객들은 안중근 의사가 피로 맹세한 자작나무 숲, 대업을 위한 8일간의 준비과정, 하일빈 의거 현장, 수감 이후 평화의 메시지까지 안 의사의 일대기를 만나볼 수 있다.

“안중근, 빛으로 기억되다”란 주제의 영상실은 5면 영상과 천정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공간감으로 독립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표현했다.

해동사 인근에 애국탑방로에 이어 추모역사관까지 완성하면서 장흥군의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장흥군은 해동사와 추모역사관을 전국 학생들의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안중근 의사가 보여준 나라 사랑 정신과 세계 평화의 꿈이 해동사를 통해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앞으로 추모역사관 아외에 조형물과 편의시설을 보강해 지역의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진도군, 부산 메가마트에서 우수 농수산물 판촉 행사

진도군이 우수 농수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부산 메가마트 동래점에서 판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부산 명륜동에 위치한 메가마트 동래점에서 청정 진도의 쌀, 울금, 구기자, 김, 전복 등 우수한 농수산물 94개 품목의 판매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엔 열리는 진도 농수산물 판촉행사는 진도에서 생산·가공하는 업체와 진도의 청년 농·어가가 직접 참여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동시에 진도의 젊은 활력소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행사 둘째날인 29일(금)부터는 진도 북놀이, 사물놀이 등 국악 공연과 추억의 DJ 박스 공연을 선보여 남은 행사기간 동안 진도 농수산물과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따뜻한 여름과 온화한 겨울 날씨를 가진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진도는 풍부한 일조량으로 농산물이 잘 자라고 냉수대와 빠른 조류로 어족자원이 풍부하다.

진도=조상용기자

## 완도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1단계 사업 추진

### 서부권 77해안도로 인근 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완료



완도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은 2032년까지 10년 동안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해안 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153억 원을 투입하여 서부권 77해안도로에 조성된 미소공원, 갯바람공원, 일몰공원에 관광 안내소와 미니 도서관, 간이 캠핑장 등을 조성한다.

또한 안도수목원과 청해포구 해신 세트장을 잇는 길에 수려한 해안 경관을 조망

할 수 있도록 ‘해안 데크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해 11월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통과한 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군은 방문자 센터 건립 및 해안 데크 길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 효과는 물론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를 잘 융합하여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이 우리 완도가 남부권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송준표 기자



강진군은 지난 3월 2일 강진을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4년 시무식 및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 강진군, ‘반값 가족여행 시즌 2’ 시동...최대 20만원 지원

### 관외 거주 가족 단위 관광객 대상

강진군은 2024 반값 가족여행 사업이 최근 사전 신청을 재개하고 두 번째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관외에 거주하는 가족 단위 사전 신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강진 여행 비용의 50%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사전 신청은 6월20일까지이며 지원금 정산 신청은 6월30일까지로,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한층 더 세밀하게 보완한 이번 시즌은 지역 상품권 정책발행 가맹점에서 사용한 영수증에 제한을 뒀 농어업 분야와 소상공인 매출 상승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반값 강진 관광의 해와 반값 가족여행 강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가 받기, 관광객을 내 가족같이 맞이하기 등 민간 영역의 활약이 필요하다”며 “진절, 위생,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강진반값여행이라는 관광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민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절 연휴와 제52회 강진청자축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반값 관광 시즌1은 2250가족(6389명)이 강진반값여행을 혜택을 통해 강진을 방문했고, 전년 대비 관광객 수가 85% 상승하는 등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해남군, 수돗물 관망

### 관리 스마트해진다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올해 완료

해남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이 올해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총 35억원을 투입해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켜 상수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수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최첨단 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가 핵심으로, 수돗물 공급의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주기적인 관망 유지·관리로 수질 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실시간 수질 감시와 함께 관내 내부에 침투된 이물질 감지 및 오염물질 자동배출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관 세척을 통해 관 내부의 침전물을 제거하여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수돗물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실시간으로 수질을 감시하는 수질계측기, 저염수 투입설비, 이상 수질 발생 시 탁수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자동드레인, 수도관 내부를 세척해 수도사고를 예방하는 관세척 인프라 구축 및 설치 등이 이뤄진다.

서부취재본부송준표 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